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4~2/10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개설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2	백팔참회문	편집부	토방
3	지장경	광덕 역	불광출판사
4	금강경선물(컬러링북)	박혜상	불교신문사
5	기도	일타큰스님	효림
6	마하시 사야도의 뿌라베다숫따 법문(죽기전에경 해설)	비구 일창담마간다	불방일
7	법화경(경전조사어록5)	우학	좋은인연
8	부처의 인생 조언	정운	유노북스
9	어른이 되는 흐름의 기술	마가	불광출판사
10	윤회와 해탈	이중표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통찰의 체험	운주사	조셉 골드스타인
2	법구경	민족사	석지현 옮김
3	번뇌와 함께 춤춰라	운주사	함현준
4	요가디피카	선요가	아헹가/현천 역
5	선심초심	김영사	스즈키 순류/정창영
6	틱낫한 기도의 힘	불광출판사	틱낫한/이현주
7	금강경 핵심 강의	좋은인연	우학스님
8	무비 스님의 신심명 강의	조계종출판사	무비 스님 지음
9	왜 나무아미타불 인가	불광출판사	J.C.CLEARY/우익지욱
10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오타쿠	김성철

제주4·3 속 불교의 상처를 기록하다



4·3과 제주불교
제주불교4·3희생자
추모사업회
비매품

국가폭력 희생 제주불교 실태 망라
56개 사찰 피해·17명 스님 희생
불교 사회참여 정신 '좌익' 낙인
"역사 증거·희생 영령 법등 되길"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제주4·3 당시 제주 불교계가 겪은 참혹한 피해 실태를 집대성한 자료집이 출간됐다. 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회장 김용범)는 최근 〈4·3과 제주불교〉를 출간하고 1월 25일 제주 관음사 대웅전에서 봉정식을 개최했다.

자료집은 지난 2004년 조계종 총무원이 발간한 〈한국전쟁과 불교문화 재Ⅱ-제주도편〉(2004)을 바탕으로, 4·3피해사찰 재조사 프로젝트 원고(2017), '제주불교신문' 연재 자료 등을 망라했다. 이를 통해 제주4·3 당시 불교계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이에 따른 탄압의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상세히 전한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스님들의 희생과 사찰 훼손의 실상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증언한다.

책에 따르면 당시 관음사 주지를 지낸 오이화 스님은 무장대 내통 혐의로 마차 위에 묶인 채 물고문을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입적했다. 또 불교혁신운동을 주도하다 입산한 이세진 스님은 산지포구에서 수장당하는 등 총 17명의 스님이 억울하게 희생됐다.

물적 피해 또한 막대했다. 봉려관 스님이 창건한 관음사가 토벌대와 무장대 간의 격전으로 전소되는 등 당시 제주의 80여 개 사찰 중 56개소가 전소되거나 파옥, 강제 매각됐다. 이는 제주불교의 신행기반을 크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민중과 함께 정토세계를 구현하고자 했던 불교계의 원력이 오랫동안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추모사업회는 "유달리 불교계의 피해가 극심했던 것은 사찰이 중산간에 위치한 이유도 있지만 '사회참여에 대한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제주 불교계가 해방 후 친일 잔재 청산과 민족 불교 재건이라는 혁신적 움직임을 보였고, 이러한 민족주의적 성향이 이승만 정권에 '좌익'으로 낙인찍힘으로써 4·3 사건의 큰 피해자가 됐다는 것이다.

김용범 회장은 발간사에서 "제주4·3 당시 불교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보고와 정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료집이 제주불교계의 사회참여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넓히고, 당시 사찰들이 겪은 피해의 실상을 보다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간 희생자 추모 위령재를 봉행해 온 제주불교연합회장 허운 스님(관음사 주지)은 "이번 자료집 발간은 화해와 상생이라는 4·3 정신을 불교의 자비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위대한 작업"이라며 "이 책이 제주불교의 강인한 역사적 증거가 되고, 나아가 제주 4·3 희생 영령들을 위한 영원한 법등이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는 1월 25일 제주 관음사 대웅전에서 〈4·3과 제주불교〉 발간 봉정식을 개최했다. 사진 제공=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

불교 핵심 '연기' 노래한 게송



쫑카빠의 연기찬 주석
쫑카빠 게송
짱캬 룔빼돌제 주석
정성준 옮김
운주사 / 2만원

연기법·중관사상 핵심 58 게송
룔빼돌제 주석서 첫 번역·역주

"세간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들. 그 뿌리는 무명이네. 이것을 보고 물리치는 모든 것, 연기라 설하네."

불교는 '연기법(緣起法)으로 시작해 연기법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기는 "모든 마음과 사물의 현상은 연(緣)하여 발생한다"는 가르침으로, 현상계를 구성하는 사물의 고유성을 부정하기에 무아(無我), 무자성(無自性) 또는 공(空)의 진리라 말해진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아함경〉에서 "연기를 보면 곧 진리를 본 것이요, 진리를 보면 곧 연기를 본 것이다"라고 설하기도 했다.

14세기 티베트불교의 교학자이자 수행승인 쫑카빠 롭상닥빠(1357~1419)는 중관사상을 깊이 연구하던 무렵 큰 깨달음을 얻고 연기법과 중관사상에 대한 찬탄과 핵심 내용을 58개의 게송으로 노래한 〈연기찬(緣起讚)〉을 지었다. 이후 티베트불교에서는 〈연기찬〉에 대한 주석들이 다수 이뤄졌는데, 그 가운데 짱캬 룔빼돌제(1717~1786)의 〈연기찬석〉이 널려 읽히고 있다.

〈쫑카빠의 연기찬 주석〉은 짱캬 룔빼돌제의 〈연기찬석〉을 처음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연기찬〉 원문과 우리말 해석, 주석과 역주를 차례로 실었다. 특히 역주에서 함축적인 게송에 담긴 시대적 배경과 의미, 주석에서 언급된 경전 구절의 원전을 자세히 소개해 이해를 돕는다.

번역을 맡은 정성준 전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원은 "이 책이 불교의 핵심인 연기법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붓다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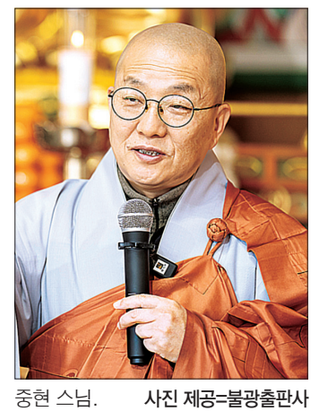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쉽게 풀어 쓴 첫 불교 수업



불교, 한 번쯤은 궁금하잖아
중현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2만2000원

'밖'에서 보고 '지금'의 언어로 쓰다
역사·문화·수행 아우른 입문서



중현 스님. 사진 제공=불광출판사

새해에도 '힙(Hip) 불교'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불교에서 위로받고 숨 쉴 틈을 얻고자 하지만, 정작 불교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불교는 여전히 '어렵고 방대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불교, 한 번쯤은 궁금하잖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이 책은 불교를 잘 모르는 이들, 혹은 불교를 막연히 '힐링의 도구' 정도로만 접해 온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친절히 안내한다.

저자인 중현 스님은 불교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불교 밖에서 불교를 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가능한 이 시대에 통용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불교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예로, 많은 이들이 불교를 '스스로 수행해 깨달음을 얻는 종교'라 인식한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불자들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더 많이 접하게 된다.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불교일까? 이 질문에 중현 스님은 "둘 다 우리 불교의 모습"이라며 "불교는 종교의 옷을 입은 수행 시스템"이라고 답한다. 보는 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비치는 불교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1부에서 4부까지는 불교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짚으며 전체 지형을 그려 낸다.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은 물론, 불교가 만들어 낸 문화와 제도,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는 불교적 사유까지 폭넓게 다룬다.

5부에서는 초심자들을 위한 '마음 다스리기'를 소개하고 기도, 예불, 불공 등의 개념을 설명한다. 6부는 불교의 선악관과 계율의 의미를, 7부는 불교의 생사관을 바탕으로 '나'에 대한 통찰을 이끈다. 어려운 불교 용어나 개념 대신 일상에서 마주하는 관계의 갈등, 선택의 부담, 불안과 피로 등을 예로 들며 불교가 '지금 여기'에서 작동하는 삶의 지혜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러한 접근은 오늘날 불교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중현 스님은 이러한 시대에 불교가 삶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사유의 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의 문제의식은 저자의 이력과도 무관하지 않다. 중현 스님은 20대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몸담았고, 30대에는 프로그래머로 변신해 고려대장경 전산화 작업에 참여했다. 이후 월간 '송광사' 편집장과 일간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꾸준히 고민해 왔다. 불교 안과 밖을 넘나든 스님의 경험은 이 책의 시선에도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불교가 궁금했다면, 그리고 그 궁금증을 풀어 보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한 번'일지 모른다.

여수령 기자



불교사상과 최신 생물학의 연관성을 탐구!
다르마와 DNA
저명한 진화생물학자인 저자가 DNA라는 구체적 실험 대상을 통해 불교의 명제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불교 사상의 원리와 논리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디 덴버 지음, 이동수 옮김/신국판/360쪽/값 24,000원

대승의 기원을 다룬 기념비적인 책!
불교와 에크리튀르
서양 인문학의 첨단 이론을 과감하게 접목하여, 대승불교의 역사를 사상사뿐 아니라 사회사의 관점에서 혁신적으로 재해석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시모다 마사히로 지음, 박현진 옮김/신국판/480쪽/값 28,000원

일본 고승들의 벼락같은 가르침!
번뇌와 함께 춤춰라
일본 명승들의 수행과 구도의 길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가르침은, 시공을 초월하여 현대인들의 마음에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와 깊은 울림을 준다.
함현준 지음/국판변형/240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